

보 도 자 료

자 료 문 의: 산업정책연구원 CSV본부 홍수현 팀장(02-360-0765, shhong@ips.or.kr)
자 료 배 포: 산업정책연구원 CSV본부 김유진 본부장(02-360-0787, egkim@ips.or.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연구원 '2014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발표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수준 전년대비 담보, 이제는 국민 체감도로 이어져야

- ✓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저변 확산으로 이어져야
- ✓ 안전, 제도적 접근 아닌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 ✓ 윤리경영 제도, 시스템 구축기 → 평가단계로 진입
- ✓ 기업의 지속경영활동, 진정성 있는 성과 없이는 국민 체감도 개선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산업정책연구원(이사장 이윤철)은 국내 산업계 지속가능경영 도입수준을 진단하고 인식확산과 실천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를 실시하였다. (1차 핵심평가¹⁾: 160개 기업, 2차 심화평가²⁾: 75개 기업)

‘14년도 조사결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7.68점(88.2점(’13년), 전년대비 0.52점 하락)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93.86점, 1.38점 하락), 윤리경영(93.48점, 1.62점 상승), 환경경영(90.91점, 2.38점 하락), 고객(89.75, 3.81점 하락), 작업장(88.78점, 1.54점 상승), 지배구조(86.25점, 0.24점 하락), 협력업체(83.99점, 2.09점 하락), 지역사회(73.53점, 2.96점 상승)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상을 중소·중견기업(협력사 포함)으로 확대하였으며, ‘산업계 안전’ 관련 지표를 보완하였다.

시사점1.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상생협력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저변 확산으로 이어져야

조사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 중 90%이상의 CEO들은 윤리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약 20%정도의 기업만이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기반은 아직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참여를 넘어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의 2차3차 협력사에 대한 관심과 지원(15%(’10)→34%(’15))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

시사점2. 안전, 제도적 접근 아닌 기업의 자발적 사회적 책임 문화로 자리 잡아야

응답기업의 90%이상이 안전관련 전담조직 설치 및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을 제도적으로

1)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전수) 및 별도 참여 신청 기업 대상 조사

2) 1차 핵심평가 대상 기업 중 별도 신청 기업 대상 조사

도입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률이 “Zero” 인 기업은 36%에 머물렀다. 이는 최근의 각종 안전관련 사고들과 더불어 제도적 측면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안전경영이 제도적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자발적 사회책임 문화의 한축으로 자리잡는 것이 요구된다.

시사점3. 윤리경영 제도, 시스템 구축기→평가단계로 진입

윤리경영은 최근 5년간 90%이상기업이 윤리경영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제도측면에서 윤리경영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주요기업은 윤리교육 강화(최근 3년 평균 연간 12시간), 윤리성과 업적평가 통합(83%('10)→96%('14)) 등을 통하여 윤리경영 내재화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협력업체 선정 시 윤리경영 도입 여부를 고려하는 기업 역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7%('10)→56%('14))

시사점4. 기업의 지속경영활동, 진정성 있는 성과 없이는 국민 체감도 개선 어렵다

지난 11년간 전담조직을 통해 윤리 및 지속가능경영을 도입하는 기업은 증가추세(62%('03)→87%('14))에 있다. 반면, 참여 기업 중 40%는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에서 전년대비 비슷하거나 오히려 소폭 하락하였다. 또한 '14년도 국민 체감도 조사에서 '한국기업이 지속가능경영을 추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약 22%만이 긍정 응답하였고, '비윤리적 관행' 을 가장 큰 이유로 지목하였다. 이는 산업계의 노력이 형식적인 지속가능경영활동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과 함께,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의 가치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지속가능경영을 통해 진정성 있는 성과 창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는 산업발전법 제18조, 19조에 근거하여 국내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개별 신청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2015년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의 진단 결과와 각 영역별 해외기업 우수사례 벤치마킹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지속가능경영 개선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2014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 2014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는 35개의 핵심지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 체계와 성과를 진단하는 1차 핵심평가와 핵심지표의 세부 보기 문항 및 심화지표를 활용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성과를 진단하는 2차 심화평가로 나누어 진행함.

[표 1] 조사 대상

구분	조사대상	응답기업
1차 핵심평가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기업, 기관 및 별도 참여 신청 기업 (협력사 및 중소기업 별도 참여 신청 기업 16개)	160개 기업
2차 심화평가	공기업	40개 기업
	민간기업	35개 기업

1 1차 핵심평가 결과

- 2014년 실태조사 1차 핵심평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조사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산업계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2014년 실태조사 1차 핵심평가의 영역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표 2] 조사결과 영역별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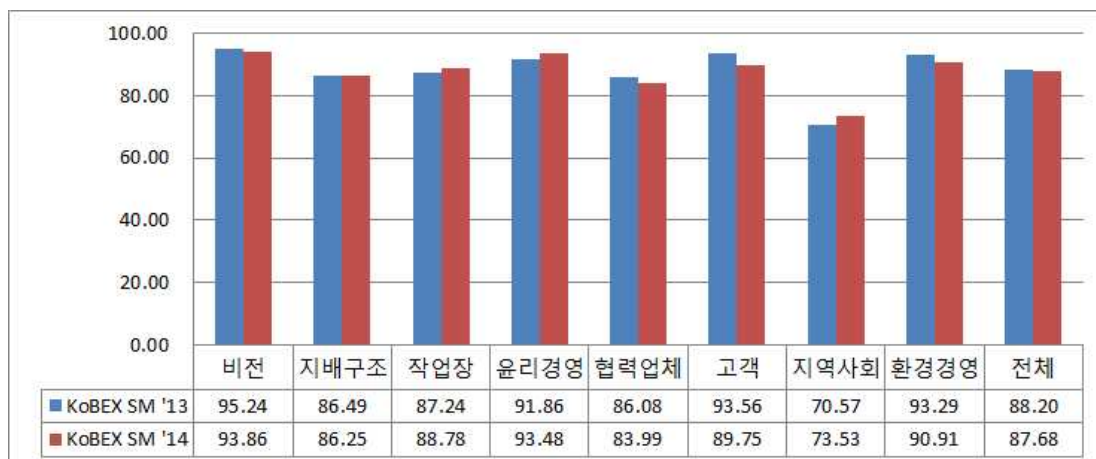
영역	주요 결과
지속가능 경영 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년간 참여기업의 90% 이상이 CEO를 중심으로 전사적 차원의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비전 및 전략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채널을 운영하면서 지속가능 이슈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배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및 일부 기업들을 중심으로 참여기업의 58%만이 이사회 혹은 최상위 기구에서 지속가능경영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조사됨 ▪ 리스크 관리에서는 80%의 참여기업이 재무적,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전담조직(부서)를 구축하여 전사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이슈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교육을 실시하는 등 참여기업의 85%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권 및 인력개발에서는 참여기업의 90% 이상이 종업원의 자기계발 제도 운영 및 인권, 차별금지 등의 노동관행지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윤리경영
 - 자체적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교육하는 등 참여기업의 90% 이상이 사내 윤리경영 관련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윤리경영 전담부서를 구축하고('13, 73% → '14, 77%), 내부공익신고 제도 및 옴부즈만 제도 등 사내 윤리 관련 참여 채널을 운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 80% → '14, 86%)
- 협력업체
 - 참여기업의 84%가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관련 제도를 운영, 협력업체의 선정시 지속 가능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하는 기업도 또한 증가하고 있음('13, 63% → '14, 69%)
 - 반면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는 참여기업의 43%만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협력업체 지속가능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공인 프로그램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객
 - 참여기업의 85%는 사회,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제품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소비문화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13, 80% → '14, 86%)
- 지역사회
 - 90% 이상이 지역사회 지원 정책, 제도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회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와 기업이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참여기업의 87%가 온실가스 배출량
- 환경경영

2 2차 심화평가 결과

- 2014년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7.68점으로 전년 대비 0.52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13, 88.2점). ([그림 1] 영역별 평가 결과 동향 참조)

[그림 1] 영역별 평가 결과 동향(2013-2014)



- **영역별**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93.86점, 1.38점 하락), 윤리경영(93.48점, 1.62점 상승), 환경경영(90.91점, 2.38점 하락), 고객(89.75, 3.81점 하락), 작업장(88.78점, 1.54점 상승), 지배구조(86.25점, 0.24점 하락), 협력업체(83.99점, 2.09점 하락), 지역사회(73.53점, 2.96점 상승) 순으로 나타남
- **지속가능경영 비전 영역**의 경우 세 가지 세부영역 모두 고루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평균 9.4/10점 만점)
 -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기업은 97%, 목표설정과 함께 해당 결과를 공개하는 기업은 87%로 조사되었고, 비재무성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비율 역시 87%로 조사됨
-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세부영역 중 ‘리스크관리’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9.4점/10점 만점), ‘주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전사적 차원에서 경제, 사회, 환경 전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업은 88%인 반면,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인 집중투표제의 경우의 무화하여 실시하는 기업은 6%로 조사됨
 - 특히 집중투표제의 경우 2010년 12%에서 2014년 6%로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작업장 영역**에서는 안전 관련 이슈에 따른 기업들의 대응에 따라 세부영역 중 ‘안전·보건·복지’에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9.6점/10점 만점), ‘노동관행지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97%의 기업이 안전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구축하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지난 1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는 36%로 나타나는 등 실행에서의 허점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또한 장애인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을 준수하는 기업은 49%로 조사됨
- **윤리경영 영역**에서는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영역으로 참여기업 모두 윤리경영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윤리강령, 윤리헌장 등 구체적인 행동준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참여기업의 95% 이상이 임직원의 인사고과 시 윤리적 의사결정능력을 평가하고 있고, 별도의 윤리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최근 3년 평균 12시간), 기업 문화차원에서 윤리경영을 내재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협력업체 영역**에서는 법규 준수와 같이 적어도 1개 이상의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내부적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94%의 기업들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지원 범위와 만족도 조사의 범위가 1차 협력업체에 한정되어 있으며, 2차 이상의 협력업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한 기업은 34%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상생협력 제도로 교육(94%)과 정보공유(93%)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고객 영역에서는** 세부영역 중 ‘공정거래 및 정보보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9.7점/10만점), ‘안전·안심 소비생활 지원’과 ‘지속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영역’이 8.6점으로 조사됨
 - 95% 이상의 기업에서 고객의 불만이나 고충 등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제도 또는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됨
 -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고객정보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고객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한 사내 처벌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99%)
 - 반면 ‘고객이 지속가능한 소비 활동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제공’한 경우는 전년대비 다소 하락 하였으나,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의 지속적인 대응 수준이 높아졌음을 살펴볼 수 있음(62%(‘10)→85%(’ 13))
- **지역사회 영역은** 점차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영역으로 조사됨
 - 지역사회 니즈 파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은 84%, 지역사회 지원 활동을 실시하는 기업은 94%로 나타남
 - 반면 이러한 활동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사회공헌, 공유가치창출(CSV)접근법 등을 고려해 볼 만함
- **환경경영 영역은** 최근 3년간 평균이 9.0점(10만점)으로 산업(업종)군에 관계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에 대한 관심과 대응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발생량 집계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89%), 에너지 소비량 측정(87%)이 가장 높게 났으며,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냄

- 끝 -